

# “럭셔리 플래그십 MPV”...렉서스 ‘LM 500h’ 한국 출시

〈다목적차량〉

4인승·6인승 2가지, 완벽한 개인 공간 구현...사전계약 실시

7월 24일 국내 첫선...4인승 로열 그레이드 1억9600만원

최상위 럭셔리 플래그십 MPV(다목적차량) ‘LM 500h’가 한국에 공식 출시된다.

렉서스코리아는 3일 플래그십 MPV인 디 올 뉴 ‘LM 500h’를 공식 출시하고 이날부터 전국 렉서스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4일 국내 출시 예정인 디 올 뉴 ‘LM 500h’는 2세대 모델로, 지난 2023년 4월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공개됐다.

‘LM’은 ‘럭셔리 무버(Luxury Mover)’의 약자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모든 탑승객을 고려한 편안한 승차감과 기능성, 우아하면서도 역동성과 럭셔리함이 느껴지는 실내외 디자인, 진동 및 소음 차단 설계, 다양한 편의사양을 갖췄다.

디 올 뉴 ‘LM 500h’는 ‘폼위 있는 우아함(Dignified Elegance)’을 정체성으로, 고급스러운 익스

테리어나 쾌적하고 개방된 인테리어를 보여준다.

전면부는 렉서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스핀들 보디(Spindle Body)’에 전면 크롬 도금 마그마 트립플 빔 LED 헤드램프를 모던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측면은 낮고 길게 뻗은 벨트라인 실루엣으로 인상 깊은 존재감을 연출하며 ‘플로팅-루프’ 타입 디자인으로 유려함과 개방성을 강조했다. 후면부는 중앙 돌출부와 펜더 볼륨으로 스탠스를 강조하고 렉서스의 ‘L’자형 시그니처 바 램프를 적용해 렉서스만의 디자인 언어를 구현했다.

디 올 뉴 ‘LM 500h’는 GA-K 플랫폼 기반으로 2.4L 직렬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후륜에 이엑슬(eAxle)이 적용된 ‘다이렉트4(DIRECT4)’ 사륜구동 시스템은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해 안



오는 7월 국내에 정식 출시되는 렉서스 디 올 뉴 ‘LM 500h’ 외관.

〈렉서스 코리아 제공〉

정적인 핸들링과 최적의 주행감을 제공한다는 게 렉서스 코리아의 설명이다.

플래그십 MPV인 디 올 뉴 ‘LM 500h’는 독립된 2열 공간을 제공하는 4인승 로열(Royal) 그레이드와 다양한 시트 포지션을 통한 자유로운 공간 할

용이 가능한 6인승 이그제큐티브(Executive) 그레이드로 나뉘어 출시된다.

4인승 로열 그레이드에는 운전석과 2열 공간을 구분해 프라이빗한 개인화 공간으로 만드는 ▲디밍과 수직 개폐가 가능한 파티션 글라스 ▲48인치 울

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 ▲신체 부위별 타겟 공조 기능 등이 탑재돼 최상급의 럭셔리 쇼퍼 드라이브 경험을 제공한다.

6인승 이그제큐티브 그레이드 역시 2열 탑승객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행을 고려해 ▲2열 VIP 시트 ▲유니버설 스텝 ▲리어 클라이밍 컨시어지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제공한다.

디 올 뉴 ‘LM 500h’의 권장소비자가격은 ▲4인승 로열 그레이드 1억9600만원, ▲6인승 이그제큐티브 그레이드 1억4800만원이다.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5%)

강대한 렉서스 코리아 부사장은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고자 안락한 승차감, 편의성, 공간감을 모두 갖춘 디 올 뉴 ‘LM 500h’를 출시하게 됐다”며 “렉서스가 모든 시간이 중요한 VIP만을 위해 새롭게 제안하는 럭셔리 플래그십 MPV인 디 올 뉴 ‘LM 500h’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디 올 뉴 ‘LM 500h’의 사전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렉서스 코리아 홈페이지(www.lexus.co.kr) 또는 전국 렉서스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기아, 8년만에 범유럽 딜러대회...“2028년 점유율 5% 달성”

41개국 딜러 2900명 참석

송호성 사장 등 임원진 총출동

비전 공유...시장 공략 의지 다져

기아가 전 세계 전동화 전환 중심지인 유럽에서 8년 만에 대규모 딜러 초청 행사를 열고 ‘2028년 현지 점유율 5% 달성’ 등 시장 공략 의지를 다졌다.

기아는 지난달 29~30일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41개국 법인과 대리점 관계자 2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범유럽 딜러대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범유럽 딜러대회는 지난 2021년 기아 브랜드 리본팅 이후 처음 열린 딜러 초청 행사로, 200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1년 프랑스 파리, 201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이어 4회차를 맞았다.

행사에는 기아 송호성 사장과 마크 헤드리히 유럽권역본부장, 기아 글로벌디자인 담당 카림 하비브 부사장 등 기아 임원진이 총출동해 기아의 사업 비전과 상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걸친 전략을 공유했다.

기아는 지난해 유럽에서 총 57만2297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21만7155대로 전체 판매의 37.9%에 달했다.

기아는 향후 친환경차와 목적기반모빌리티



‘2024 범유럽 딜러대회’에서 기아 그룹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제공〉

(PBV)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오는 2028년 연간 판매 80만대,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아는 올해 EV3를 출시하는 등 2026년까지 전기차 풀라인업을 갖춰 유럽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동화 선도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앞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는 2022년 한국 브랜드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했고, 대

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은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 ‘2024 영국 올해의 차’ 등에 올랐다.

송호성 사장은 “유럽은 기아의 글로벌 판매와 전동화 전략의 핵심 지역인 만큼 EV6, EV9에 이어 EV3도 성공적으로 출시해 전기차 대중화 전환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6월부터...시·군·구청서 신청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올해 6월부터 적용 받게 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 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 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공명 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달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24 다투르부르크링 24시 현대차 팀 출전 단체.

## 현대차, ‘뉘르부르크링 레이스’ 9년 연속 완주

대회기간 ‘아이오닉5 N TA’ 공개

현대차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뉘르부르크에서 열린 ‘2024 다투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 3대, i30 파스트백 N 컵 1대 등 4대의 차량이 출전해 완주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뉘르부르크링 내구레이스 완주’ 기록을 세우게 됐다.

뉘르부르크링 내구레이스는 24시간 동안 총 주행거리가 가장 긴 팀이 우승하는 대회로, 숲으로 둘러싸인 혹독한 코스로 ‘녹색 지옥’(Green Hell)으로 불린다.

올해 대회에서 엘란트라 N TCR은 4년 연속 TCR 클래스 우승을 달성하면서 종합순위 42위에 올랐다. VT2 클래스에 출전한 i30 파스트백 N 컵 카는 종합순위 75위를 기록했다.

이번 레이스에는 국제모터스포츠협회(IMSA) 미쉐린 파일럿 시리즈에 나서는 브라이언 헤르타 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현대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으로 선발돼 레이스 드라이버로 데뷔전을 치른 김규민 선수는 VT2 클래스에서 2위를 기록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현대차 N브랜드&모터스포츠사업부 팀 바텐베르크 상무는 “고성능 N브랜드의 기술력 축적과 해외 다양한 지역에서의 모터스포츠 활동으로 드라이빙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동차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대회 기간 뉘르부르크링 서킷 외부 공간에 ‘N-팬 존’ 부스를 설치해 ‘아이오닉5 N TA 스펙’을 공개했다. 이 차량은 오는 23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PPHIC) 대회에 참가한다.

이 차량은 84.0kWh(킬로와트시) 고용량 배터리와 650마력을 낼 수 있는 고성능 모터 시스템을 갖췄다. 또 고성능 충격 흡수 장치와 18인치 슬릭 타이어, 공기역학성 강화 설계, 배터리 화재 방지 시스템 등 모터스포츠 전용 패키지가 탑재돼 빠르고 안전한 레이스를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4월 국내 전기차 판매

국산차 줄고 수입차 늘었다

올해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 넘게 감소한 반면, 수입 전기차 판매는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합리적 가격의 소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며 이러한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갭’ (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대응에 나섰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산 승용 전기차 판매량(한국GM의 쉐보레는 수입차에 포함)은 지난해 같은 기간(2만 4520대)보다 32% 감소한 1만6586대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 승용 전기차 판매량은 102.9% 증가한 1만3863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입 승용 전기차 판매 증가는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이끌었다.

지난해 1~4월 국내에서 1417대를 판매했던 테슬라는 올해 같은 기간 7922대를 판매했다. 증가율만 459%에 달한다.

다만 테슬라를 제외해도 수입 승용 전기차 판매는 1~4월 기준 지난해 5417대에서 올해 5941대로 9.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4개월간 수입차 전체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이와 관련, 전기차 시장 수요가 정체기에 돌입하면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은 부담이 덜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낮은 수입차 고객의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더 타이어 쉐르 2024 금호타이어 부스 조감도.

〈금호타이어 제공〉

## 금호타이어, 독일 ‘더 타이어 쉐르’ 참가

‘엑스타’ 등 초고성능 제품 공개

금호타이어는 오는 4~6일(현지시간) 독일 쉐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쉐르(TTC) 2024’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 주제를 ‘패션 인 이노베이션 앤드 프로그레스’(Passion in Innovation & Progress)로 정하고, 자사의 초고성능 제품을 다수 소개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전시회에서 여름용 초고성능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를 포함한 엑스타 스포츠 라인업을 처음 공개한다. 전기차 전용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 EV’도 첫선을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4년간 유럽연구소(KETC)를

통해 엑스타 스포츠 제품의 에너지 효율과 마일리지를 향상했고, 스포츠 퍼포먼스 기능을 검증했다.

윈터크래프트 WP52 EV는 기존 겨울용 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WP52를 전기차 특성에 맞게 변형한 제품이다.

이 밖에도 금호타이어는 엑스타 HS52, 솔루션 HA32, 윈터크래프트 WP72 등 주력 제품과 함께 에어본 타이어 등 미래 콘셉트 타이어를 전시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유럽지역 주요 거래처를 초청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한 전시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강승 유럽본부장 전무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스마트 모빌리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